

보르헤스 작품의 알기와 읽기

최근의 번역본에 대한 몇가지 논점들

김춘진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과

중세 어느 두 신학자의 경쟁과 암투를 그린 보르헤스의 픽션 「신학자들」에서 그중 한 신학자 환 데 빠노니아는 이단을 단죄하는 명평결문으로 경쟁자를 물리치고 교리 해석의 권위를 획득하지만, 얼마후 바로 그 평결문이 이단을 옹호했다는 죄목이 씌워져 처형된다. 「신학자들」의 테마는 정통과 이단의 상대적 가변성, 그리고 그 이분법적 언어에 숨겨진 아이러니였을 것이다.

기독교를 축으로 한 서구문명의 역사는 정통과 이단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과장해 단순화하면 우리의 모든 세상사도 정통과 이단 논쟁의 연속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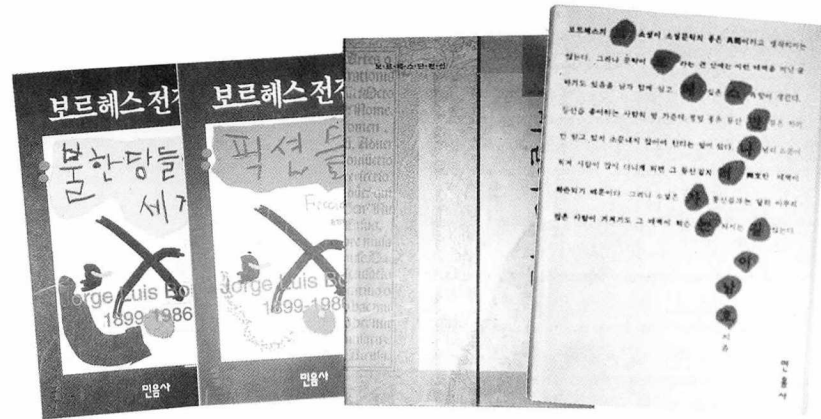
저간의 보르헤스 번역본들에 대해 논평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정통과 이단논쟁일 수 있다. 정통/정본을 세우고 이단/결격본을 가려내는 작업을 뜻한다면 말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느 번역이 옳았는가보다는 각각의 번역본에 어떤 점이 일러달만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야겠다. 그것이 「신학자들」이 시사하는 보르헤스적인 논평일 것 같으니 말이다.

정확한 번역은 작품전체의 이해에서 출발

먼저 좋은 번역을 대상 작품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가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단위의 이해와 번역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적 맥락의 이해가 정확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하기가 오독의 풍요로움과 독자의 변화무쌍한 상상력을 미덕으로 요구하는 보르헤스의 작품이고 보면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무엇인지도 막연해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학자들」에서처럼 언어의 역설과 아이러니는 보르헤스의 일관된 테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보르헤스의 논리적 기제이며 허구적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같은 이해가 번역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번역의 정확성 여부를 가늠하는 한가지 척도가 될 수 있다.

「틀린, 우크바르, 오르비스 페르띠우스」에서 인간이 창조한 또하나의 지구 틀이 투입되면서 실제의 현실이 와해되고 틀린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어투로 번역되어 있다.

“틀린과의 접촉 그리고, 틀린으로 가는 길들은 이 현실세계를 붕괴시켰다. 틀린의 학문에 매료당해서, 인간들은 그 학문이 천사의



학문이 아니라 단지 체스 게임의 학문임을 잊어가고 있다.”

“틀린과의 접촉과 그것이 가진 관습의 침투는 그 세계를 해체시켜 버렸다. 그것의 엄밀성에 현혹된 인류는 그것이 천사들의 엄밀성이 아닌 장기고수들의 엄밀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재차 망각해간다.”

“이 세계는 틀린의 관습과 접촉함으로써 분열되었다. 틀린의 엄정함에 매료된 인류는 그것이 천사들의 엄정함이 아니라 장기를 두는 사람들의 엄정함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이 부분은 신이 만든 세계/현실이 인간이 만든 세계/틀린과 포개지면서 틀린=현실이라는 메타포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틀린/현실의 정교하게 짜여진 지식, 과학, 종교, 문화 전반의 체계에 인간 스스로 최면되어 그들이 사는 세계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의식화의 산물인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문체의 차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르헤스의 풍자적 메타포를 되살려낼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하다.

작품의 이해야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과장된 상상은 의미의 풍요로움이라는 덕목의 한계를 이탈한다. 위의 대목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유평과이를 외면하고 공상과학세계로 진행해가는 인류의 지적 노력들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인 해설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읽기인 것 같다.

국문학자 이남호 교수가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민음사)을 내놓은 것은 이제 보르헤스가 남미문학 전공자들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독자와 문학자가 공유하는 고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한다. 국내에서 보르헤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8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였다. 최초의 번역은 단편집 「알렘」 중 한 작품의 제목을 붙인 선집 「죽은자」(중앙일보사, 1988)였다. 1992년에는 또다른 선집 「바벨의 도서관」(도서출판 글)이, 이어서 몇달 뒤 「허구들」(녹진)이 출판되었다. 지난 1994년에는 전집기획의 일부로 「불한당의 세계사」와 「픽션들」(민음사)이 빛을 보았다.

각각의 번역본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가장 최근의 번역인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은 역자의 의도대로 보르헤스 풀어서기의 시도였다. 가급적 번역어투를 피하고 우리말화된 번역문 또는 우리것으로 재창조된 보르헤스를 선보이고자 했다. 그래서 읽기는 수월한 반면, 원의를 벗어나는 과잉번역이 자주 눈에 띈다. 황병하 역 「픽션들」도 쉽고 평이한 문체로 보르헤스 읽기의 어려움을 덜었다. 기존의 번역본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번역을 이루고자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박병규 역 「허구들」은 원전에 충실하려 애썼다. 그래서 때때로 웅색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간결하면서도 밀도 있는 문체의 특징에 근사한 점이 없지 않다.

번역 텍스트를 보는 태도도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남호 교수가 보르헤스의 열린 독서세계에 매료되어 있는가 하면, 황병하는 현대의 문학이론을 고루 예고한 아방가드적 경향에 주목하고, 박병규는 보르헤스의 문학이 포괄하는 테마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번역의 연속성이 존중되는 풍토 필요

거의 주를 달지 않은 번역이 있는가 하면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이나 「픽션들」은 철저하게 역주를 달았다. 이남호의 번역은 우리 문화에 낯선 고유명사 위주로 역주를 달았

다. 역자의 말대로 「A Dictionary of Borges」를 활용한 때문이라. 「픽션들」의 역주는 작품 해설을 겸해 번역의 보충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가볍고 수월한 독서로 유도한다. 「허구들」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역주를 달아 작품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했다. 색인만도 책 한권 분량이 넘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 박학한 이론, 명제, 교리를 자유분방하고 변화무쌍하게 구사한 보르헤스를 읽기 위해 역주와 같은 예비지식이 주어지면 좋을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역주를 많이 다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보르헤스의 픽션이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사실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을 뒤섞는 것이다. 그것이 허구인가 사실인가가 픽션의 전개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것이 보르헤스의 마술적 사실주의의 한 기교였다면, 넘치는 역주는 그 기교의 맛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게다가 잘못된 역주들, 지나치게 친절한 역주들은 오독의 풍요로움보다 해독을 유발하고 읽기를 방해한다.

보르헤스를 아는 것과 보르헤스를 읽는 것은 다르다. 보르헤스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라면 역주가 많을수록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르헤스를 읽는 것은 지적 깊이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깊이지 않은 역주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독자의 판단과 수고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번역의 효율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작품을 여기저기서 되풀이 번역 출판하는 것은 상업적 경쟁에서 연유한다. 기왕에 다종의 번역이 이루어질 바에야 나중 번역이 처음 번역보다 발전된 것일 필요가 있다.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최초의 번역에서 최종 번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듬어질 수 있도록 번역의 연속성이 존중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졸속보다 성실성을 번역자의 덕목으로 키워줄 것이다.

한가지 남은 인상은 보르헤스의 함축적이고 암시적 문체가 우리말 번역에서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이다. 보르헤스 알기에 치중한 탓일까? 이제는 단순히 알 단계를 넘어 보르헤스를 읽고 생각해볼 단계에 오지 않았나 여겨진다. 과장법이나 선정적 어법에 익숙해진 우리는 최근 보르헤스 예찬론에 있어서도 절대적 수사법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그 예찬의 근거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